

人間教育과 상담 프로그램

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서 ‘秀越性 追求’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수월성이란 지적·도덕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知的 秀越性을 위해서는 전문·전공 과목의 심오한 탐구와 교수가 요구되고, 道德的 秀越性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수준높은 교양·인격 교육이 요구된다.

대학의 지적 수월성 추구에 대해서는 첨단과학을 비롯한 學問의 細分化 등에 따른 전문인력의 수요가 절실한 마당에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이미 이에 대처하고 있으며, 대학도 이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적 수월성 추구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이나 직업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사회적·실용적 추세에 밀려 相對的으로 輕視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회의와 우려의 소리가 있다.

화이트헤드는 단편적 지식으로 박식하기만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였다. 道德的 教養과 品性을 갖추지 못한 채 그저 박식하기만한 사람이야말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실례를 역사상에서 많이 보아 왔다. 머리·가슴·손의 조화로운 발전, 즉 思考·道德·技能의 균형있는 발전에서 교육의 이상을 찾았던 페스탈로찌나 修己治人을 이상으로 삼았던 공자에게서 우리는 도덕교육이야말로 참다운 교육목표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굳이 옛 성현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교육이란 궁극적으로 ‘人間이 되게 하는 것’에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치열한 입시경쟁의 관문을 통과하여야 한다. 입시지옥이라는 말이 실감날 만큼 경쟁이 치열할 때에는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潛在的인 敵으로 보기 마련이다. 주위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경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들어 올 수 있는 곳이 오늘의 대학이다. 어릴 때부터 주위의 부추김과 상대평가에 의해 경쟁심과 투지를 불태워 온 학생들이 타인을 안중에 두지 않는다거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협동이라든지 ‘우리’라는 개념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게다가 무분별하게 수입된 외국식 個人主義와 物質主義까지 합세하여 이유야 어떻든 나만 잘 살고 잘 쓰면 된다는 利己主義가 팽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기주의야말로 오늘 우리 사회의 病理的 現狀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주범일 것이다.

과거에는 精神異常을 ‘귀신에 사로잡힌’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정신분석 및 의학의 발달로 그것은 심성적·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이 되었다. 환경이라던 가정, 학교, 사회를 의미할 수 있을텐데 학교는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가 모두 합세하여 오로지

釜山大 總長 張 赫 杓



공부와 성적이라는 單一 價値만을 강조하는 무미건조하고 어찌던 살벌하기까지 한 풍토 속에서 학생의 인간적 감수성의 발달이나 건강한 인격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인격적으로 한껏 취약한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오게 된 학생들은 기존질서와 체제에 재빨리 순응하여 실리만을 쫓거나, 감각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경박한 인간이 되거나, 경직된 운동권의 논리에 빠져 비판적 안목과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표류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 대학은 人間教育이라는 교육의 本質的 目標에 더욱 접근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젊은 대학생들의 가치관이 건전하게 성숙될 때 우리 사회의 건전한 풍토와 발전 역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인간은 아무런 신념없이 환경과 체제에 요령껏 잘 적응하는 인간도, 이기주의나 경쟁심의 化身이 된 자도, 박학다식하지만 인간적 감수성이나 윤리적·도덕적 감각이 박약 내지 마비된 창백한 기술적 지식인도 아니다. 비록 지금은 갈등과 고민에 휩싸여 있다 하더라도 환경과 체제를 비판적·안목에서 수용하고자 애쓰며, 그곳에서 주체적으로 사고·판단·행동하는 자유를 가지되 그 행동에 책임질 수 있으며, 항상 나보다는 남과 이웃을 배려하고 전체사회에 대한 공동체의식이 투철한 그러한 인간이다. 자율적으로 사고할 수 있되, 항상 타인과 전체를 배려하는 마음을 동시에 지닌 그런 인간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간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인간을 배출하기 위해 大學教育이 인간 중심적인 교양을 쌓게 하고 도덕적 품성을 배양해야 한다는 것은 세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에 人間教育으로의 회복 내지 회귀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敎養教育이 확대·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교양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철학 및 사회과학 분야, 예술 분야 등에 대한 다양한 강의가 단계별로 개설되어 학생들의 비판적·심미적 안목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규 교육과정 외에 의사소통기술, 인간관계, 진로 선택, 가치관의 선택 및 정립, 자아성장 및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사고를 재검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알고 배려하는 마음이 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소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생생활연구소를 확대하고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보다 질 높은 학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